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1.6.(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한 북한 내부 동향을 북한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통상 신년사를 발표하거나 신년사를 대체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또는 당 대회 결과 종합보도 직후 한 달여 동안 과업 관철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지역별 쫄기대회, 부문별 쫄기모임, 근로단체별 쫄기대회 등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회의 폐회 후에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1월 1일부터 주요 산업현장을 찾아 현장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어제 10만여 명 참석하에 개최된 평양시 쫄기대회를 보도하는 등 관영매체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의 관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쫄기대회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 북한 각지에서 쫄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를 고려할 때 북한은 올해도 한 달 안팎으로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1월 1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 북한의 전원회의 후속 동향들을 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결과 보도를 보면 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작는데 이렇게 경제 부문의 언급이 작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 부문에 대한 통일부의 분석을 말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북한은 작년 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경제실적과 관련하여 건설사업, 농촌살림집 외에는 예년에 비해 성과에 대한 언급을 대폭 축소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계획과 관련하여서도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월 17일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서 올해 경제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목표들이 제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